

‘창밖은 봄에의 예감’

호원숙 수필가



우리 집 식탁 옆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커튼을 열면 창문 가득히 산수유나무가 보인다. 산수유는 이른 봄 노릇노릇한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봄을 알리더니 여름에는 풍성한 녹색으로 별을 가려주고 커튼을 치지 않더라도 밖에서 집안을 가려준다. 여름이 가고 그 짙은 녹색이 이울어질 때는 이파리에 묻혀 보이지 않던 연둣빛 열매가 붉게 익어가 마치 작은 불꽃 같다.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아직 잎이 물들기 전이라 푸르른 그늘을 너울거리고 있었는데 아침녘에 직박구리들이 어찌나 많이 깃들여서 푸덕거리는지 그 분주한 소리와 모습이 장관이었다. 열 마리가 넘는 새들이 떼지어 나무 한 그루를 놀이터 삼아 널뛰고 장난치고 곡예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아침을 먹다 말고 영상으로까지 찍어 놓게 되었다. 요즘 흔하게 주고받고 복제되는 것이 동영상이지만 나만의 것인 듯 다시 돌려

보아도 생명력이 넘치는 움직임과 나뭇잎의 흔들림이 재롱인 듯 기특하여 싫증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냥 재미난 일이 아니었다. 며칠 후 담 너머로 붉게 익은 산수유열매가 잔해처럼 후드득 떨어져 있고 나무를 올려다보니 며칠 새에 열매를 남김없이 다 따먹어버린 게 아닌가? 새들의 향연을 멋진 풍경이라고만 지켜본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멧쩍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눈이 와도 붉은 열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때로 달려든 직박구리가 다 독식해버렸으니. 그러나 어찌 새를 나무라리오? 그들은 그들의 양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늘.

아무리 작은 정원이지만 자연이 베푸는 프로그램은 반복됨이 없어 사람의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변화와 긴장감을 가져다 주는 지도 모른다.

얼마 전 몇 년 동안 써왔던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데 AS를 받거나 잉크를 주문하는 것보다는 새로 바꾸는 게 더 현명하다고들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 제품을 찾으려니 수많은 목록에 질려서 머리부터 아파왔다. 주말에 온 아이한테 호소하니 “저도 이제 그런 거 잘 몰라요. 열심히 찾아봐야죠”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눌 사이도 없이 적당한 제품을 찾고 결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며칠 후 한밤중에 택배 기사가 오고 물건이 배달됐지만 내게는 설명서를 읽는 것도 아득한 일이다. 다행히 다음 날 아이가 비교적 일찍 퇴근한다며 고맙게도 들려주었다.

“저도 이제 잘 몰라요. 매뉴얼을 봐야죠.”

어릴 적 동네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가장 먼저 컴퓨터를 접하고 앞서갔던 아이인데 이제 세상의 속도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랜만에 노트북과 새 프린터가 무선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간간이 자식과 두런두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아들에는 자정이 넘어 제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면서 “할머니 보고 싶다”며 할머니 사진 앞에 절을 올린다.

얼마 전 어머니의 첫 소설 <나목>으로 연극공연을 한다 해서 홍익대 근처의 산울림극장으로 갔다. 지하철로 홍대입구역에서 내려 통로를 찾는데 출구까지 꽤 긴 통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저녁 무렵 젊은이들의 빠른 걸음소리가 우렁찼다. 그들은 저마다 어울리는 최신 패션을 하고 있었고 몸매와 키가 훗칠하고 얼굴빛은 환하게 빛났다. 좌절감이나 낭패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듣거나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데도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분주함에는 무언지 모를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였다. 같이 걸어가지만 차원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듯했다. 나이가 들어버린 눈으로 보아서일까? 오랜만에 저녁외출을 해서일까?

그 전에도 와보았던 소극장이지만 언덕을 오르면서 여러 번 길을 물어보았다. 마냥 지루했던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았던 소극장은 눈에 띄지 않게 파묻혀 있었지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연극을 공부하고 처음 시작하는 젊은 극단은 최소한의 무대장치와 인물들로 장편소설을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었다. 오래된 장르가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고 1950년대 배경의 문학작품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을 바라보

며 나도 모르게 감탄했다. 원작을 살리면서 대본을 만들고 대본에 따라 긴 대사를 외우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간의 인내와 고통의 반복 일진대 그 몰입 자체가 대견하고 경이로웠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아무도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연극에 몰두하는 것도 놀라웠다.

연극이 끝나고 뒷자리에서 자식의 첫 연극을 보러 온 부모들의 눈빛을 본다. 내 마음처럼 애타면서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으리라. 그들과 무언의 눈길을 나누며 모두 한 무대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살아온 세월이 다르지만 같은 무대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우러났다.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포스터의 글귀를 다시 보며 연마와 열정을 가지고 봄을 기다리는 건강한 젊음을 본다.

나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헤어진 덧버선을 꿰매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바늘과 실이라는 눈에 보이는 도구로 손을 움직이는 것에 멀리서부터 오는 깊은 평온감을 느낀다. 이 오롯한 시간은 신비롭게도 마음을 낮추어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운을 준다. 봄은 열매는 새들에게 다 내어주었지만 산수유나무 가지 끝은 벌써 봉긋봉긋 망울을 맺고 있다. 창밖에 빈 나무들을 바라보며 봄에의 예감으로 마음을 모아본다. 🌱

※ 호원숙 : 수필가. 1954년 서울 출생. 경기여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 <뿌리깊은 나무> 기자, <박완서 소설전집> 기획위원 등 역임. 에세이집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커졌다>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그리운 곳이 생겼다> 등 출간. 현재 경운박물관 운영위원.

※본문의 보라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접역(點譯)하였습니다.